

이슈브리프 351호
(2022. 4.27)

북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 열병식의 특징과 시사점

제351호

이기동 한반도전략연구소



국문초록

북한은 4월 25일 저녁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열병식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은 열병식 연설에서 기존의 '신냉전' 인식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둘째, 이러한 '신냉전'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주동적 안보환경 조성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급속한 핵무력의 지속적 강화·발전을 주동적 안보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자산으로 삼을 것임을 밝혔다. 셋째, 선제핵사용과 근본이익을 연계하여 핵전략 운용을 위한 운신의 폭을 확장하였다. 근본이익의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석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이는 북한의 오판에 의한 선제핵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북한은 무기전시회를 방불케 할 만큼 다양한 무기체계들을 선보였으나 국제사회가 크게 충격받을 정도의 가공할만한 신형 무기체계는 등장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화성포-17형'을 반복적으로 무력시위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전술적 자제의 발로일 수도 있고 가공할만한 대체물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이 선보일 다음 조치가 7차 핵실험일 경우,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좌천당했던 리병철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복귀는 군사부문과 군수부문을 분리하여 군사부문은 포병지휘관 출신인 박정천이, 군수부문은 미사일개발책임자인 리병철이 담당하는 투톱시스템을 상무위원회 내에 확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4월 25일 오전에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건군절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중앙보고대회를 생일·사망일과 같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 직결된 행사에만 국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심어: 조선인민혁명군, 열병식, 선제핵사용, 근본이익

비정규군 창설일에 열린 열병식

북한은 4월 25일 저녁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1932.4.25.) 기념 열병식을 개최하였다.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을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주체형의 첫 혁명적 무장력”으로 규정한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온전한 국가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된, 파르티잔(유격대) 방식의 전술을 사용하는 비정규군의 성격을 지닌다. 북한은 정규군을 창설한 1948년 2월 8일을 건군절로 기념하다가 1978년부터 비정규군을 창설한 4월 25일로 이를 변경하였고, 인민군 창건 70주년을 맞이한 2018년 1월 정치국 결정을 통해 다시 2월 8일을 건군절로 복원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해온 사회주의정상국가화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공식적인 건군절(2.8)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군 창설기념일에 열병식을 개최한 이유는 올해가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현재 김정은이 추진하고 있는 핵전쟁억제력 및 국방력 강화노선 과시와 무관하지 않다. 김정은은 자신의 공식 집권 10주년(4.11~13)이나 김일성 출생 110주년(4.15)에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4월 11일 송화거리 준공식, 4월 13일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10주년 중앙보고대회와 평양시 군중시위에 참석하는 등 친인민적 정치행보를 보였다. 정치행사에는 인민적 행보, 군행사에는 국방력 과시 행보라는 정치적 매칭행위를 선택한 것이다.

열병식에서 나타난 특징과 시사점

이번 열병식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열병식에서 행한 김정은의 연설을

보면,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회의에서 현재의 국제관계를 ‘신냉전’구도로 표현했던 김정은의 국제정세 인식이 반영되었다. 김정은은 이번 연설에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세계”, “세계군사력의 발전추세와 급속하게 변화되는 전쟁양상” 등과 같은 표현으로 설명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신냉전’ 인식이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신냉전’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듯하다.

둘째, 이러한 ‘신냉전’ 인식을 바탕으로 주동적 안보환경 조성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은은 이번 연설에서 “우리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려는 자들과는 끝까지 무력으로 결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의 혁명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선제핵사용)을 결단코 결행”,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과 같은 거친 표현들을 동원하였다. 또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하여 급속한 핵무력의 지속적 강화·발전을 주동적 안보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자산으로 삼을 것임을 밝혔다.

셋째, 선제핵사용과 근본이익을 연계하여 핵전략 운용을 위한 운신의 폭을 확장하였다. 김정은은 ‘국가의 근본이익’ 침탈에 맞선 선제핵사용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였는데 이것은 ‘근본이익’의 모호성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근본이익’이라는 용어는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회의에서 행한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 언급되었다. 당시 김정은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이익의 내용과 실체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유지하였다. 근본이익이라는 용어는 중국이 비타협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핵심이익’을 연상케

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핵심이익’의 실체에 대해 명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의 전후 맥락으로 보면, 북한은 근본이익을 생존권 차원에서 인식하였다. 발전권에는 대표적으로 대북제재가 포함된다. 따라서 발전권 침해에 대해서는 자력갱생에 기초한 내적동력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존엄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국가제일주의’ 담론으로 포장하였다. 생존권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생존의 보검(寶劍)이자 존엄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있는 핵무기를 근본이익 중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비등하고 있는 ‘선제타격론’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이유이다. 북한은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징후들이 감지될 경우 이를 근본이익 침탈행위로 간주하고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북한은 근본이익에 대한 모호성 유지를 통해 자신의 핵전략 운용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려 하고 있다. 북한이 선제핵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2021년 2월 8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 8차 당대회 당시 제시한 선제핵불남용 원칙을 선제핵사용 원칙으로 변경하였다.¹⁾ 그러나 당시에는 선제핵사용과 근본이익을 연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연설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은 근본이익의 실체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본이익에 대한 해석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마치 대북적대시 정책의 명확한 실체를 밝히지 않으면서(한미연합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등과 같이 밝힌 것도 있지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핵전략 운용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려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북한의 오판에 의한 선제핵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 노동신문 사설, 2021.2.8. ““만약 적대세력들이 우리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하여 공화국 영토밖에서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넷째,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무기전시회를 방불케 할 만큼 다양한 무기체계들을 선보였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크게 충격을 받을 정도의 가공할만한 신형 무기체계는 등장시키지 않았다. 고체연료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3종의 북극성계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하였으나 ‘화성포-17형’ 미사일 시험발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인데다 이미 예상했던 무기체계여서인지 국제사회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이다. 다만, 이번 열병식에도 지난 3월 24일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하는 ‘화성포-17형’이 재등장하였다.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2021년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1’, 2022년 3월 시험발사에 이어 같은 무기를 통한 네 번째 무력시위이다. 이러한 반복적 무력시위는 전술적 자제의 발로일 수도 있고 가공할만한 대체물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이 선보일 다음 조치가 7차 핵실험일 경우에는 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섯째, 2021년 7월 김정은의 특별명령에 대한 태공과 태만을 이유로 좌천당했던 리병철이 10개월 만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비서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6인체제로 재편되었고, 두 명의 군 출신이 상무위원직을 맡게 되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내에서 군사부문과 군수부문을 분리하여 군사부문은 포병지휘관 출신인 박정천이, 군수부문은 미사일개발책임자인 리병철이 담당하는 투톱시스템을 확립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억제력과 국방력 강화노선을 고수하고 중시하는 김정은이 군수부문을 배려한 인사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경제건설 중시 차원에서 경제엘리트를 정치국 상무위원에 추가로 임명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섯째, 4월 25일 오전에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북한은 올해 김정일 출생 80주년

행사(2.16)를 계기로 2019년 7월 ‘전승절’ 이후 중단했던 중앙 보고대회를 2년 반 만에 부활시켰다. 이어서 4월 11일에는 김정은의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 추대 1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를 열었고, 4월 15일에는 김일성 출생 11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중앙보고대회는 주요 정치적 계기마다 당·정·군의 주요 간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의 결의를 다지는 정치행사로, 김정은 유일영도체제 과시와 강화의 좋은 기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에서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추정하건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식적인 건군절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중앙보고대회를 생일·사망일과 같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 직결된 행사에만 국한시켜서 개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의 선제핵사용 발언이 미칠 파급영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우리 내 부적으로 한미확장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할 것이다. 이런 사안들이 5월 말 개최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중국은 여전히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몰두하고 있어 이 사안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인다. 국제비확산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비확산 리더십마저도 분열되고 있다. 이제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힘든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